

한국교회 신뢰회복 프로젝트

한국교회 목회자 은퇴 시스템을 생각하다

- 발표1. "목회자 은퇴 연구의 필요성: 불안한 현실과 공교회적 대안을 중심으로"
김상덕(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연구실장, 명지대 객원교수)
- 발표2. "한국교회 뇌관: 은퇴"
조성돈(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기윤실 공동대표)

일시 | 2022년 11월 25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 한국기독교교회관 조에홀(서울 종로구 대학로 19)

중계 |  기윤실 유튜브

문의 | 이명진 간사(02-794-6200, cemk@hanmail.net)

한국교회 신뢰회복 프로젝트 발표회

한국교회 목회자 은퇴 시스템을 생각하다

- ◆ 일시 : 2022년 11월 25일(금) 오전 10시 30분 ~ 12시 30분
- ◆ 장소 :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조예홀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9)
- ◆ 순서

시간	내용	담당자
10:30-10:40 (10")	개회, 발표회 주제 및 취지 설명	사회자: 신동식 (교회신뢰운동 본부장, 빛과 소금교회)
10:40-11:10 (30")	발표1. 목회자 은퇴 연구의 필요성: 불안한 현실과 공교회적 대안을 중심으로	김상덕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연구실장, 명지대 학교 객원교수)
11:10-11:40 (30")	발표2. 한국교회 뇌관: 은퇴(사례발표)	조성돈(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기윤실 공동대표)
11:40-12:10 (00")	질의응답	사회자
12:10-12:30 (20")	마무리 발언	정병오(기윤실 공동대표)

- ◆ 문의
기윤실 이명진 간사(02-974-6200, cemk@hanmail.net)

목 차

I. 목회자 은퇴연구의 필요성:

불안한 현실과 공교회적 대안을 중심으로	4
들어가며	5
1. 연구 배경: 교세 감소와 목회자 보수, 그리고 은퇴까지	5
2. 선행 연구들	7
3. 무엇이 문제인가: 목회자 은퇴의 긍정적/부정적 사례분류	8
4. 심화 질문: 목회자 은퇴 준비, 무엇이 얼마나 필요할까?	12
5. 목회자 은퇴 준비, 누구의 몫인가	15
나가며: 불완전한 현실, 공교회적 대안이 필요하다	17

II. 한국교회 뇌관: 은퇴

들어가며	22
1. 목회자 은퇴를 이야기하는 배경	23
2. 은퇴의 편법/불법의 현상: 4가지 유형	25
3. 은퇴의 핵심 사항	27
4. 다른 시선	30
5. 은퇴 후 수입	32
6. 제안	33

**발표1. 목회자 은퇴 연구의 필요성:
불안한 현실과 공교회적 대안을 중심으로**

김상덕(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연구실장, 명지대학교 객원교수)

들어가며

한국교회가 압축적이고 급속도의 성장을 거치고 난 후, 2000년도를 기준으로 전반적인 감소세의 상황을 거치고 있다. 이 가운데 드러난 위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목회자 은퇴에 대한 공교회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기윤실 교회신뢰운동본부(본부장 신동식 목사)는 지난 1년 동안 이 주제에 관심을 두고 논의해왔고 오늘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다. 이 발표의 주목적은 목회자 은퇴와 관련한 문제의식을 높이고 이에 대한 공교회적 대책을 강구하기 위함이다. 이 글은 이를 위한 기초 연구에 해당한다. 전국의 목회자가 겪는 많은 어려움과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이를 전수 조사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목회자 은퇴와 관련한 현실적인 어려움, 그중에서도 경제적 부분, 그리고 이에 대한 윤리적이고 신학적 논의를 주로 다루고자 한다. 특히 작고 평범한 교회의 목회자가 은퇴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구체적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목회자 은퇴 보수 문제로 제기될 수 있는 사례를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그 속에서 목회자 및 교회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살필 것이다. 글 마지막에는 불완전한 현실을 인정하고 이를 헤쳐 나가기 위한 공교회적 관심과 실천에 대해 다룰 것이다.

1. 연구 배경: 교세 감소와 목회자 보수, 그리고 은퇴까지

한국교회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동안 기윤실 교회신뢰운동의 방향성은 주로 윤리적 관점에서 목회자 및 교회의 공적 역할을 중심으로 고민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목회자의 스캔들이나 대형교회의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한 사안들에 집중해왔다. 이는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세력'(power)으로서의 조직이자 공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한 감시와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함은 마땅하다. 하지만 교회 신뢰 회복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영역이 존재한다. 주로 작고 평범한 교회들이다. 한국교회의 현실을 생각해보면, 전체 교회의 절반가량이 미자립교회이고, 다수의 목회자가 적정한 보수조차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목회자 및 교회의 윤리적 갈등의 지점은 비단 대형교회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작고 평범한 일상에서도 발생하며 '현실'이란 명목하에 다양한 타협과 비윤리적 결정들이 이뤄진다. 굳이 드러내거나 밝혀지지 않을 뿐, 한국교회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들을 생성한다. 이 글은 목회자의 은퇴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사례에 대하여 다룬다. 그러나 개교회나 목회자의 책임을 묻고자 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원인과 제도적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임을 밝힌다.

1) 한국교회 감소 현상

한국교회의 감소세는 지난 20년 동안 지속되고 있으며 그 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사회 전반에 걸쳐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시대로의 진입, 그리고 경기 침체의 장기화 등은 종교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갤럽이 지난해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 1984-2021>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이후로 종교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2004년

47%였던 비종교인의 비율은 2021년 60% 대로 늘어났다.¹⁾ 종교인구의 고령화도 심각하다. 2021년 종교인은 60대 이상의 경우 59%인 반면, 20대에선 22%밖에 되지 않는다.²⁾ 이런 흐름 속에 기독교에 대한 낮은 신뢰도와 부정적 인식은 전도와 선교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교회 간 수평적 이동을 제외한 경우 한국교회의 교세 감소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다.

2018년 예장합동 총회에 발표된 보고에 따르면, ‘미자립교회’(한해 예산 3,500만원 이하)는 전체 응답자의 42.7% 정도였다. 반면, ‘자립교회’(3,500~1억 이하)는 28.5%이고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여건의 ‘지원교회’(1억원 이상)는 28.8%였다.³⁾ 같은 해, 감리교는 전체 45%⁴⁾, 예장통합은 전체 35%⁵⁾가 미자립교회라고 보고했다. 미자립교회의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교단 총회에 개교회의 성도 수와 예산, 지원 금액 정도를 모두 정확히 보고해야 그 정도를 파악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교인 수를 기준으로 할 때, 교회 규모의 차이는 더 명확해진다. 감리교의 경우 교인 수 100명 미만의 소형교회는 전체 60%에 해당하며, 200명 미만으로 범위를 확장하면 72%가 된다. 다시 말해, 교인 수 200명 이상의 중대형 교회는 전체 28%밖에 되지 않으며, 1,000명 이상의 초대형 교회는 4% 정도이다.⁶⁾

예장합동 교회자립개발원은 매해 미자립교회의 자립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확한 교세 보고 및 현황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를 위해 부정적 의미의 ‘미자립’ 대신 ‘미래자립교회’ 용어를 사용한다. 2020년 <기독일보>의 연중기획 “한국교회 셋강을 살리자” 특집은 미자립교회의 현황과 도전, 실천과 전략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⁷⁾ 그러나 이 특집에서도 교회의 개척이나 자립 유지를 위한 과정까지는 다루지만, 각 교회의 담임목사가 은퇴할 경우에 대해선 다루지 않고 있다.

2) 은퇴 및 은급 제도 관련 현황

목회자 은퇴 보수와 관련한 그동안의 논의는 주로 대형교회 담임목사가 과도한 금액의 은퇴 보수를 받는 경우들에 대한 윤리적 비판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와는 반대의 경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주요 교단들은 ‘은급’(pension)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 1) 갤럽리포트, <한국인의 종교 1984-2021>, 갤럽 (2021.5.18.) 참조
- 2) 위 자료.
- 3) 한 관계자는 설문에 참여하지 않은 교회들을 포함하면 실제 미자립교회는 60% 정도일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교회 42%가 예산 3,500만원 미만의 ‘미자립’”, 뉴스앤조이 (2018.9.13.)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9807> (접속 2022.10.5.)
- 4) “[육속부달] 감리회 교세, 지난해만 6만 명 급감”, 기독교타임즈 (2018.10.11.) <https://www.kmc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368> (접속 2022.10.5.)
- 5) “주요교단서 미자립교회 실태 보고”, 기독교신문 (2019.12.12.) <http://gdknews.kr/m/page/view.php?no=6994> (접속 2022.10.5.)
- 6) 이원규, 『한국교회의 사회학』 (성남: 북코리아, 2018), 213. 이원규는 교회의 규모를 초소형, 소형, 중소형, 중형, 중대형, 대형, 초대형으로 세분화하여 구분한다.

초소형	소형	중소형	중형	중대형	대형	초대형	계(%)
20명 미만	20-49명	50-99명	100-199명	200-499명	500-999명	1,000명 이상	
26	20	14	12	17	7	4	100 (N=543)

- 7) “[연중기획/한국교회 셋강을 살리자 시즌2] 1부 미래자립교회 실태와 상황 ①미래자립교회 현황 파악도 못했다”, 기독신보 (2022.10.), <https://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342> (접속일 2022.10.4.) 이 특집은 2020년 2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총 4부에 걸쳐 17개의 세부 기사로 미자립교회 문제를 다루고 있다.

최근 주요 교단들이 은급 규모를 삭감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 예장통합은 은퇴목회자 연금 지급률을 향후 15% 삭감을 추진했으며⁸⁾, 감리교는 약 13%(월 12만원) 삭감하기로 하고 그 대신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했다.⁹⁾

그러나 은급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교단의 경우, 목회자의 은퇴 이후에 대한 경제적 책임은 오롯이 개교회의 몫이 된다. 그 결과, 교회가 은퇴 목회자의 생계를 위한 재정이 마련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로 나뉘게 된다. 이에 따라 그 결과는 예기치 못한 교회 내 갈등과 부적절한 사례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특별히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감소세와 매해 문을 닫는 교회들, 그리고 은퇴하는 목회자의 비율들이 상충함에 따라 또 다른 문제들로 연쇄적이고 확장될 위기에 놓여있다. 따라서 목회자 은퇴 보수에 대한 논의는 목회자의 은퇴 및 이후의 삶에 대하여 공교회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불균형한 한국교회의 상황 속에서 교회의 갈등 및 분열, 목회직 양도/매매와 유사 세습, 그리고 교회 존폐의 위기 등으로 이어질 심각한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교회의 신뢰 문제와 직결된다. 또한 해당 교회의 교인들이 목회자 은퇴시기에 발생하는 비윤리적 상황으로 인하여 실망과 충격을 겪으며 신앙의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

목회자 은퇴가 가져올 수 있는 위기는 교회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인 교인 감소와 그에 비해 줄어들지 않는 목회자 수,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이 자리한다. 또한 목회자 은퇴 보수에 미치는 외부적 요인으로는 부동산 및 물가상승 등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목회자 은퇴는 개인의 문제인가, 개교회 혹은 구조적인 문제인가를 중심으로 연구의 필요성과 신학적 윤리적 과제들을 살피고자 한다.

2. 선행 연구들

목회자 은퇴 보수에 관한 선행연구는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그동안 제기된 문제의식이나 연구의 방향은 주로 은퇴 후 목회자의 삶이라는 개인적인 측면에 집중되어 있거나 교회의 규모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목회자 은퇴와 관련한 선행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 개인에게 있어서 퇴직/은퇴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직업, 소명, 사회적 위치의 상실은 자신의 공적인 정체성의 상실과도 같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목회자의 은퇴 후 경험하는 심리적 영향들에 대한 연구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손의성(2013)은 은퇴목회자가 경험하는 우울과 정서적 어려움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소개한다.¹⁰⁾

반면, 다수의 연구가 목회자가 은퇴 후 삶에 대한 만족도를 경제적 상황과 연결시킨다는 점이 눈에 띈다. 문병용(2009)은 은퇴 후 노후보장제도(연금제도)가 은퇴목회자의 심리적 안정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다룬다.¹¹⁾ 김종선(2013)은 목회자가 은퇴 후의 삶을 잘 적응하는가를

8) "예장통합, 은퇴목회자 연금 지급률 15% 삭감 추진", 국민일보 (2022.8.4.)

<https://m.kmib.co.kr/view.asp?arcid=0924257838> (2022.10.20. 접속)

9) "은퇴 목사 은급비 월 12만원 삭감... 젊은 목회자 국민연금 가입 의무화", 뉴스앤조이 (2021.10.27.)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3573> (2022.10.20. 접속)

10) 손의성, "은퇴목회자의 우울과 고독감과 대처자원 관계 연구", 「교회와 사회복지」 22 (2013), 7-42.

11) 문병용,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소형교회 목회자의 심리적 안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은퇴 후 연금제도를 중심으로", 「교회와 사회복지」 10 (2009), 7-33.

경제적 변수와 연결하고 분석한다.¹²⁾ 비슷하게, 박근수는 목회자의 은퇴 준비가 이후 노후만족도가 높아짐을 보여준다.¹³⁾

목회자 은퇴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이미 제기된 바 있다. 조성돈(2017)은 <목회와 신학> 2017년 10월호에서 목회자의 은퇴는 목회자 개인과 교회가 사전에 잘 준비해야 하는 일임을 강조한다.¹⁴⁾ 한국교회는 목회자의 은퇴 연령과 원로목사 추대를 위한 조건 정도만 모호하게 언급할 뿐 구체적인 제도나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 한국교회 정서상 은퇴 및 예우에 관한 말을 목회자도 교회도 꺼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목회자의 은퇴가 닥치면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또한 은퇴 준비의 소통과정도 목회자 혼자서 결정하지 말고 교회와 함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진행할 것을 주문한다. 이와 함께 리더십 이양과 경제적 문제를 집중해서 언급한다.

기독교대한성결교의 월간지인 <활천>은 2020년 8월호의 특집 주제를 “목회자의 인생 후반전”으로 선정한 바 있다.¹⁵⁾ 편집팀은 특집 주제를 선정한 배경에 관하여 목회자의 명예롭고 아름다운 은퇴 후의 삶을 위하여 목회자와 교회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자 한다고 밝힌다. 이 특집에서 다른 목회자 은퇴와 관련한 주제는 크게 (1) 은퇴 후 목회자의 거처, (2) 은퇴 후 예우(보수), (3) 은급제와 의료 실손보험 가입 여부, (4) 명예로운 리더십 이양, (5) 은퇴 후 의미 있는 삶 등이다. 즉, 목회자 은퇴는 크게 주거, 보수, 의료, 명예로 요약될 수 있다.

이 연구 주제와 관련해서는 이현철(2021)의 “소형교회 은퇴목회자의 삶과 딜레마에 관한 질적연구”를 주목할만하다.¹⁶⁾ 특별히 이 연구는 교단별 은급 제도의 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소형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피고 있다. 또한 목회자가 은퇴 후 겪게 되는 어려움을 심층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질적 연구를 시도했다는 의의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이현철은 소형교회 목회자가 겪는 어려움을 (1) 은퇴 후 무료함, (2) 경제적 어려움, (3) 목사로서 정체성 혼란, (4) 체계적 은퇴 준비의 어려움, (5) 교회와의 관계 등으로 나누어 소개한다. 이런 연구는 교단 전체 통계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러나 더 부각되어야 할) 은퇴목회자의 당면과제를 입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3. 무엇이 문제인가: 목회자 은퇴의 긍정적/부정적 사례 분류

먼저 목회자 은퇴 보수에 관한 논의에 앞서 은퇴 시 발생하는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사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¹⁷⁾ 이 글에서는 목회자 은퇴가 가져올 결과를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를 구분할 기준은 다양하겠지만, 은퇴 시기의 목회자 입장과 교회의 입장으로 나누어 볼 것이다. 이 기준에서 볼 때 목회자와 교회 모두 만족하는 경우와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특별히 은퇴 보수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크게 다섯 가지

12) 김중선, “개신교 목회자의 은퇴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사회경제적 변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회와 사회복지』 23 (2013), 141-177.

13) 박근수, “은퇴목회자의 은퇴준비가 성공적 노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62 (2013), 127-150.

14) 조성돈, “은퇴 위기, 유비무환이 답이다”, 『목회와신학』 2017년 10월호 참조.

15) 『활천』, 805권 12호 (2020.8)

16) 이현철, “소형교회 은퇴목회자의 삶과 딜레마에 관한 질적연구”, 『갱신과 부흥』 27 (2021), 343-370.

17) 이를 위해서는 양적 조사도 필요하겠지만, 사례별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도 제안할만하다. 이번 기윤실 프로젝트에서 조성돈 교수는 목회자의 은퇴와 맞물려 목회자와 교회가 당면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인터뷰를 진행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교단, 지역, 교인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터뷰 대상을 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긴 어렵지만, 연간 예산이 1억 원 미만인 교회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 이상의 교회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정도의 유형을 생각해볼 수 있다.

- 유형 1. 적절한 은퇴 보수, 목회자와 교회 모두 만족함
- 유형 2. 부족하지만 은퇴 보수를 제공, 교회 갈등은 없음
- 유형 3. 부족한 은퇴 보수, 교회 갈등의 원인이 됨
- 유형 4. 은퇴 보수 못 줌, 이임 목사에게 권리금처럼 요구하여 받음
- 유형 5. 은퇴 보수 못 줌, 목회를 접고 교회를 파산함

1) 적절한 은퇴 보수, 목회자와 교회 모두 만족함 (유형 1)

먼저 <유형 1>의 경우, 적절한 은퇴 보수/사례에 대한 추가 논의는 필요하겠지만, 일단 목회자와 교회가 모두 만족한 경우이므로 본 논의에서는 배제하기로 한다. 추후 <유형 1>의 사례들은 은퇴 보수/사례에 대한 평균적인 수준이나 기준을 도출하기 위한 조사 자료로서의 가치는 있다고 보인다.

2) 부족하지만 은퇴 보수를 제공, 교회 갈등은 없음 (유형 2)

<유형 2>는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은퇴 보수를 제공하지만 불충분한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교회 내 갈등은 없을 수 있다. 목회자가 교회의 재정적 상황을 이해하고 부족한 보수임에도 만족하기로 한 경우에 속한다. 이런 경우는 은퇴 목회자에게 재정적 상황보다는 교회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며 목회자 스스로도 명예가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유형은 겉으로는 은혜로워 보일지 몰라도 목회자 개인에게 희생과 책임을 과중하게 묻는 것과 같아서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목회자가 자발적으로 부족한 보수에 만족한 것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결과일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은퇴 당시에는 수긍했을지라도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어려움과 후회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유형의 경우, 목회자 개인이 은퇴 이전부터 목회자와 교회가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겠다.

3) 부족한 은퇴 보수, 교회 갈등의 원인이 됨 (유형 3)

<유형 3>은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은퇴 보수를 불충분하게 제공하고 이것이 교회 갈등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에 해당할 것이다. 은퇴 보수 연구가 필요한 가장 직접적인 배경이 된다. 앞서 언급한대로 목회자의 은퇴는 목회자 한 개인의 은퇴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 리더십 이양, 사회적 요구나 윤리적 기준에 따라 교회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유형 3>의 원인으로는 (쉽게 예상하듯이) 교회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떠올릴 수 있다. 한국 교회의 절반 가까이가 미자립교회에 해당하고, 교인수 100명 이하의 교회가 60%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다수의 교회들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목회자 은퇴를 기점으로 갈등의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즉, 목회자 은퇴로 인한 교회 갈등의 문제는 소수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다수에서 발생하는 사안이며, 특히 작고 평범한 보통의 교회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에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4) 은퇴 보수 못 줌, 이임 목사에게 권리금처럼 요구하여 받음 (유형 4)

넷째로 <유형 4>는 교회가 은퇴 보수를 줄 형편이 안 된다는 판단 하에 목회자 은퇴 보수를 교회가 아닌 이임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경우이다. 적게는 몇천만원부터 많게는 수억에 이르기까지 금액을 요구하는데, 목회자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기보다 교회 규모(재정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마치 상가를 사고팔 때 이전 가게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권리금을 정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 수상한 거래가 목회자 간에 직접적으로 이뤄지는지 혹은 교회에 헌금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지는 큰 의미가 없다. 물론 위법성 여부도 따져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담임목사직을 사고파는 것은 신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목회자 자질이나 소명이 훌륭해도 '권리금'을 가져오지 못하면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의 심각성은 은퇴를 앞둔 목회자와 해당 교회는 현실이라는 이유로 후임 목회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권리금'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는 데 있다.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현실이 우선되고, 문제임을 알고 있지만 처한 처지가 비슷한 목회자나 교회들은 서로를 눈감아 주기도 한다. 자신들의 상황에 비하면 대형교회의 목회자들은 말도 안되는 금액을 은퇴 보수/예우로 받는 것을 손가락질함으로써 애써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다.

5) 적정 은퇴 보수 못 줌, 목사가 교회를 처분함 (유형 5)

마지막으로 <유형 5>의 경우는 목회자가 목회자에 의해 사유화되는 경우로 볼 수 있는데, 교회의 부족한 재정 상태로 인하여 목회자 개인의 생계를 위하여 스스로 목회를 그만두고 교회에 속한 저축예금이나 건물 보증금 등을 처분하여 스스로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이다. 이에 대한 윤리적 평가와는 별개로, 교회 자체를 파산한 경우를 목회자 은퇴 사례/보수의 연구의 대상으로 다루기에 다소 불필요해 보인다. 이런 사례가 실제 얼마나 일어나는지에 대한 조사도 그 성격상 계속되기 어렵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목회자 스스로가 교회를 접는다는 것은 각각 경우마다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매우 힘든 결정일 것이다. 이런 결정을 주변이나 교단에 알리기도 어렵고, 또한 교회 재산을 누구의 소유로 할 것인지는 또 다른 복잡한 요인이 될 것이다.¹⁸⁾

6) 불안한 현실, 개인(교회)의 몫으로만 놔두면 안 된다

그동안 목회자 은퇴와 관련한 논의의 초점은 주로 교단의 은급 제도를 개혁하거나 목회자 개인의 몫으로 미루는 형태였다. <유형 2>와 <유형 3>은 겉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문제의 해결을 개교회에게 맡기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교단별 은급 제도의 개선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은급 제도가 있다고 해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보통 은급 제도는 목회자 개인이 부담하거나 교회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로 나뉘

18) 교회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교단이 가지고 관리하는 경우와 개교회가 관리하는 경우로 나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목회자가 독단적으로 교회를 파산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겠지만,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이라는 것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수 있는데, 재정 형편이 부족한 작은 교회들의 경우 이 금액도 상당히 부담이 되기 마련이다. 당장 교회 재정(예를 들어, 건물 임대료 등)이 어려운데 은퇴는 먼 미래의 일이기예 우선순위에 밀리기 마련이다. 애초에 목회자의 급여에는 퇴직연금이 자동으로 포함되어야 하지만, 다수의 소형교회들에서 목사들이 받는 월급은 당장 생활비로도 부족하다. 그러니 노후(은급)는 당장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먹이는 일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결국, 나의 노후란 교회의 부흥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한국 사회의 인구감소와 교인수 감소라는 큰 물결을 거슬러 오르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로서는 목회자 은퇴를 목회자 개인의 책임으로 과중하게 돌리는 경향이 있다. 작은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건 대동소이하다. <유형 2>와 같이 교회 재정이 부족해도 갈등이 없었던 것은 오로지 목회자의 인정과 수용의 결과이다. 목사는 교회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수용한 것이지 이것이 목사로서 가져야 할 당연한 선택은 아니다. 관점을 달리 말하면, 직장인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 하지만 목사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를 당연시 여기는 인식과 문화가 자리한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목회자마다 처한 현실(개인 자산, 친인척, 가족 구성, 주거지역 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목회자는 은퇴 보수가 부족해도 이외의 대안이 있을 수도 있다. 반면에 어떤 목회자는 걱정만 은퇴 보수가 꼭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다.

남겨진 교회 입장에선 목회자가 과욕을 부린다고 생각할 수 있다. **목회자를 떠나보내고 어려운 재정 형편을 떠안은 채 운영을 이어가야 할 교회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다.** 그러나 꼭 교회를 욕할 수도 없다. 교회 재정이 충분했다면 어느 교회도 이런 일로 불화를 만들지 않을 것이다.¹⁹⁾ 문제는 현재도 교회가 어렵고 앞으로도 어찌 될지 모르는데 (더구나 숙련되고 안정적인 리더십이 은퇴를 하는 상황이니) 목회자의 은퇴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목회자와 교회 상호 간에 합의가 필수적인데 “적정한 목회자 은퇴 보수”에 관한 연구나 어떤 판단 기준이 거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목회자의 은퇴 보수가 당연한 권리인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예우의 문제인가부터 이해가 다르다. 필자는 **교회가 사전에 목회자 은퇴 보수에 대해 계획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목회자도 가정을 책임지고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목회자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강요된 청빈’일 뿐이다.²⁰⁾ 더구나 목회자가 은퇴한 후에는 생계가 막막한데 이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고 당장의 교회 형편에 따라 지급의 여부와 지금 금액의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목회자’의 기본 권리에 대한 이해가 일반 사회 수준보다 못하다는 뜻이 된다. 목회자이기에 경제적 풍요를 추구하지 않는 것이지, 현실적 필요 자체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현실을 무시하면 탈이 난다. 은퇴 후 삶에 대한 걱정은 목회에 집중할 수 없도록 하고 예기치 못한 부작용들을 양산한다. 목회자의 열악한 형편은 우선 목회자 가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로써 목회자 스스로도 목회에 집중할 수 없으니 교회로서도 손실이다. 목회자의 자녀는 부모를 원망하거나 목회자로서의 삶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나아가 신앙과 교회에

19)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작고 평범한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중이다. 사회적 상식을 넘는 과도한 은퇴 목회자 예우는 높은 윤리적 기준에 비추어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옳다.

20) 다수의 목회자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정재영, 『강요된 청빈』 (고양: 이레서원, 2019)을 참조하라.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다. 소위 PK 문화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모순 중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목회자 은퇴 문제는 미래의 목회자 후보생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자신의 모교회에서 영적 스승이자 멘토였던 목회자의 은퇴 장면은 향후 목회자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매우 복잡한 요인들이 작용하겠지만, 목회적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의 규모나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성실히 목회를 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은 큰 교회 목회자와 작은 교회 목회자의 처우와 생활수준의 격차가 너무 크다. 이런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상황은 목회라는 본연의 소명보다 어떻게 하면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을지만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부작용을 낳게 한다.

이런 사고는 결국 신자유주의 체제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한 몸 한 지체인데, 현실은 ‘각자도생’하는 경쟁의 장이 되어 버렸다. 목회자가 소명을 달성함이 작고 연약한 자를 섬기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데 있다고 여기며, 세상의 기준에 의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신실한 삶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선한 영향력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목회자의 소명의 추구보다 어떤 규모의 교회에서 사역하느냐에 따라 그 처우가 극명하게 다르며, 이를 자연적인 경쟁과 생존의 문제로 방치하고 있다. 그러니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되는 원리에 따라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 대형교회를 향해 올라가려고 애를 쓰기도 한다. 하지만 현실은 대형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 오로지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개인의 능력이 목회적 자질이 아니라 인맥과 친분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소위 대형교회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자조적인 농담은 목회자란 소명에 의한 동기보다 경쟁에 의해 작동되고 있으며, 그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계급이 형성 및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능력주의(meritocracy)에 대한 비판적 논의의 배경은 신자유주의 체제가 가진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대 사회가 불평등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개인의 능력으로만 공정한 결과(행복)를 예측할 수 있는 구조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아무리 노력해도 경제적 간극을 좁히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이런 경우, 사회 구성원은 개인의 노력의 가치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되고 변칙적인 수단을 강구하게 된다. 경쟁이 더 이상 서로에게 동기부여로 작동하여 사회 전반의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비정상적(혹은 비윤리적) 수단에 눈을 돌리게 된다는 경고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유형 4>는 은퇴 후의 생계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변칙적인 방식에 해당한다.

4. 심화 질문: 목회자 은퇴 준비, 무엇이 얼마나 필요할까?

앞서 한국교회를 그 예산 규모에 따라 미자립, 자립, 지원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미자립교회는 연간 3,500만원 이하이고, 자립교회는 3,500만원에서 1억 미만, 지원교회는 1억 이상이다. 한 해 예산 1억원 이상의 지원교회는 여기서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고, 미자립과 자립교회를 경우를 좀 더 살펴보기로 하자.

1) 목회자의 낮은 소득과 불평등

목회자 은퇴와 관련하여 부작용을 줄이려면 목회자 은퇴 시기에 필요한 은퇴 보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목회자와 교회 간의 합의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기준이 천차만별이라 각각의 입장이 상이할 경우 조율이 쉽지 않다. 은퇴 후 경제적 필요는 상이할 것이고 교회가 이를 수용하는 정도도 교회의 상황별로 다를 것이다. 따라서 일종의 목회자 은퇴 보수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 이 금액은 모든 교회에 이 정도 금액의 은퇴 보수를 주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구체적인 논의와 준비를 하려면 어느 기준점이 필요한 까닭이다.

2021년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월 327만원이고, 이중 정규직은 월 379만원, 비정규직은 168만원으로 집계되었다.²¹⁾ 반면에, 한국교회 목회자의 소득은 월 176만원으로 절반을 조금 넘는다.²²⁾ 이 가운데 지역별 소득 차는 특정 지역이나 중소도시에서 더 낮아진다. 목회자 소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회 규모이다. 교인 수 300명 이상의 교회의 경우, 목회자의 월 소득은 315만원인데 반해, 100-300명 미만은 202만원, 50-100명 미만은 185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50명 미만의 교회의 경우, 목회자의 평균 소득은 월 124만원으로 상당히 저조하다.²³⁾ 정재영은 이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교회의 형편은 더 좋지 않을 것이며, 개척교회나 이종직 여부, 가족의 기타 수입 등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목회자의 경제적 형편은 교회 규모가 작을수록 심각한 생활고에 노출되어 있다고 분석했다.²⁴⁾

2) 적절한 은퇴 보수를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한가

은퇴 보수의 적정선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크게 재직일수, 월기본급과 기타수당, 연상여금과 연차 수당 등이 필요하다.²⁵⁾ 이 글의 초점이 작은 교회란 점을 상기할 때, 목회자의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급여의 기준을 어디에 잡아야 할지 결정이 쉽지 않다. 낮은 소득에 맞춘다면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좋겠지만 현재로도 낮은 목회자 급여가 정당화되는 것 같아 주저된다. 국가에서는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로서 최저임금제를 실행하고 있는데 다수의 목회자들이 이 기준에 못 미치는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교회 형편이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목회자 급여 기준을 높이 상정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한국교회 절반 이상이 미자립교회이고 60% 가량이 100명 미만의 작은 교회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목회자 평균소득인 월 176만원과 근로자 평균소득인 월 327만원 중간값인 250만원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한다. 이는 담임목사의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포함한 전체 급여를 말한다. 편의를 위해 상여금 계산은 제외하고 기본급여를 기준으로만 계산한다. 여기에 재직기간은 20년으로 가정한 후, 일반적인 퇴직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21)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참조.

22)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1998-2018)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 2018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의식 조사』 (서울: 도서출판 URD, 2018), 588-589 (정재영, 『강요된 청빈』 (고양: 이레서원, 2019), 23 재인용)

23) 위의 책, 590.

24) 정재영, 『강요된 청빈』, 24-25.

25) 고용노동부는 자신의 퇴직금을 간편하게 계산하도록 홈페이지에서 안내를 하고 있다.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하라.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월 평균급여 = 250만원
 총 재직일수 = 7,670일
 1일 평균임금 = 약 81,521원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51,392,198원 = 81,521 x 30 x 7670/365

쉽게 말해, 월 급여 250만원을 받는 목회자가 20년 재직 후 은퇴할 경우 직장(교회)은 퇴직금으로 약 5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금액은 자립교회의 경우 1년 예산의 절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에 지출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 따라서 미리 퇴직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목회자의 은퇴 시기 10년 전부터 퇴직금을 비축한다고 가정할 경우, 1년에 500만원, 한 달에 약 41만원 가량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빠듯한 재정 상황이었지만 1년 예산의 5% 정도를 목회자 은퇴 시기를 대비하는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문제는 자립교회를 연 예산 3,500만원부터 1억 미만으로 구분하고는 있지만, 교회별 예산 규모는 상이하며 같은 자립교회라고 해도 미자립교회와 재정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교회가 오롯이 퇴직금을 준비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미자립교회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퇴직금 5천만원이란 금액은 미자립교회 1년 예산 3,500만원의 1.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만약 미자립교회가 목회자 은퇴 시기 10년 전부터 퇴직금을 비축한다고 해도, 전체 예산의 14%에 해당하는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대부분의 미자립교회 목회자는 월 176만원 보다 적게 받거나 이마저도 정기적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²⁶⁾ 이 금액을 목회자의 퇴직금으로 비축해야 한다는 것은 부족한 재정 형편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교단이 미자립교회를 지원할 때 은퇴 보수와 관련한 예산이 추가 책정되어야 한다.

또 교단 내 목회자의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가 퇴직금을 미리 준비할 것을 교육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교단별 목회자 은퇴 수요와 필요를 조사하고 실제 목회자와 교회 사이에서 적정한 은퇴 보수를 위한 사전 준비 과정을 교육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기관이 필요해 보인다.

3) 은퇴 후 주거 문제

퇴직금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목회자의 은퇴 후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주거지이다. 부동산 대책 마련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이고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장 교단은 은퇴목회자를 위한 공동 숙소를 건립하여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²⁷⁾ 이에 대해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은 개인으로서는 주택청약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고, 교회 사택의 활용 여부, 교단

26) 정재영, “소형 교회 현실의 의미와 전망”, 21세기교회연구소·한국교회탐구센터, 『소형 교회 리포트』(세미나 자료집, 2017.12.01), 145. 정재영은 소형교회 목회자의 현실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는 70.4% 밖에 되지 않으며, 나머지 21.4%는 사례비를 받지 않으며, 8.3%는 부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다고 밝힌다. (정재영, 『강요된 청빈』, 25 재인용)

27) “[특집] 은퇴 목회자 급증... '집 걱정'부터 덜어줘야”, Daily Good News (2016.11.10.) <http://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69553> (접속 2022.11.3.)

차원에서 공동주택이나 사회적 주택을 형성하고 운영하는 방법 등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자산/투자 목적보다 주거의 목적과 공동체 형성이라는 본질적인 목적에 부합하도록 건설사 중심이 아닌 협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사회주택 혹은 사회적 주택 개념이 큰 관심을 얻고 있다.²⁸⁾ 국내 첫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위스테이 별내’가 사회주택의 좋은 예이다. 이 프로젝트를 주도한 사회혁신기업 ‘더함’은 기독교적 가치에 기반하여 아파트를 ‘욕망의 장’이 아닌 ‘공동체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주거 공간이자 사회적 약자를 품는 공동체를 지향한다고 밝힌다.²⁹⁾ 사회주택은 은퇴 목회자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품는 대안적 주거 정책으로서 교회(교단)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4) 은퇴 후 의료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

마지막으로 목회자가 은퇴하면 맞닥뜨릴 수 있는 것은 건강 문제이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의료비 실손보험 정도는 경우에 따라 필요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이 상당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완전한 보장은 아니다. 이와 함께, 비보험진료에 해당하는 질병이나 치료약의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은퇴 후 목회자들에게 의료비 지출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가톨릭 신부와 수녀에게는 일선 병원들이 무료 진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병원이나 의료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5. 목회자 은퇴 준비, 누구의 몫인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있다. 목회자 은퇴 준비는 누구의 몫인가? 오로지 개인과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것인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긴 한 것일까? 벼랑 끝에 몰려 당장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사람에게 ‘그건 네 스스로 해야 할 일이니, 알아서 해결해!’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을 내 손으로 직접 미는 것만 다를 뿐 떨어지도록 방치하는 행위와도 같다. 국가는 취약 계층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노력하지만, 이마저도 시장과 자본의 논리로 선택적이고 부분적이며 제한적이다. 교회는 어때야 할까?

1) 국가, 개인, 그리고 교회

오근혜와 황인태(2020)는 개신교 목회자의 은퇴 및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다루면서 국내 주요 교단의 은급 제도와 해외 교단의 사례를 비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단 외부의 제도(국민연금, 직장연금, 개인연금 등)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제안한다.³⁰⁾ 오근혜와 황인태의 제안에 담긴 함의는 목회자 은퇴에 대한 교단별, 국가별 정책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교회가 목회자 은퇴에 대한 공교회적 합의나 적절한 기준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더구나 개교회별

28) 김승환, “한국 사회의 전세 대란의 대안으로서 사회(적) 주택의 의미와 가능성”,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기사연 리포트> 15호 (2021), 32-43.

29) “새로운 개념 아파트 ‘위스테이’, 왜 짓느냐고요?”, **한겨레** (2020.7.20.) <https://www.hani.co.kr/arti/society/handicapped/954401.html> (2022.11.06. 접속)

30) 오근혜 & 황인태, “목회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관한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로고스 경영연구」 18 (2020), 1-22.

상황은 편차가 더 크기 때문에 어떤 일반적인 대안이 불가능해 보인다. 게다가 장기화된 교세 감소와 은급 재정 건강성의 약화 등으로 교단이 개인 목회자의 은퇴를 책임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판단이 자리한다. 그 결과, 목회자 개인의 노후 준비를 교회가 아닌 공공연금이나 개인연금을 통해 스스로 준비해야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러한 현실적 판단에 동의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한 공교회적 대안은 없는 것인지 되묻게 된다. 개인적 준비와 함께 목회자 은퇴 문제를 한국교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도 필요해 보인다. 2022년 5월 감리회 목회자 모임인 ‘새물결’은 “목회자 생활보장제도”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다른 교단들에 비해 비교적 목회자의 생계 및 은퇴를 제도적으로 잘 지원한다고 평가받는 루터교, 성공회, 기장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 모임에서는 교단 교세는 작지만 목회자의 은퇴를 제도적으로 준비하고 지원하는 사례들과 필요성들을 다뤘는데 은퇴 후 주거문제와 최저생활보장제 등을 공교회적 차원에 다뤄야한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이룬 것이다.³¹⁾

2) 공교회적 신앙 고백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한국교회가 주일예배 때마다 함께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공교회(公教會)로서 우리의 신앙을 기억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상기시킨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되었으며, 각기 서로 다른 지체로서 감당한 역할이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다를 수는 있어도, 교회는 모두 하나이다. “성령을 믿는다는 고백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선물, 즉 보혜사 성령이 우리(교회)와 함께 한다는 것(마28:18-20)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귄과 소통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물론, 성도와 성도 간의 사귄과 소통을 가능케 하고(고후13:12-13), 때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고전12:4-6)을 믿는 것이다. 무엇보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임(엡4:3-4)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다.”³²⁾

“이어지는 ‘거룩한 공회’(the Holy Catholic Church)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the Communion of Saints)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란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특성을 가지며 각 지체들은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 공동체임을 보여준다. 먼저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좇아 거룩해야 한다. 거룩함이란 교회의 정체성이자 존재의 목적이다. 세속에 물들지 않으며, 세상의 권력에 저항하고, 정의와 평화를 실천하고 이로써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명으로 ‘부름 받은 자’(ecclesia)들을 일컫는다. 또한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로서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따르는 기억의 공동체이자, 함께 만나고 보듬어주는 사귄의 공동체임을 나타낸다고 하겠다.”³³⁾

31) “목회자 최저생활보장, 공교회성 회복의 첫걸음”, 아이굿뉴스 (2022.6.7.) <https://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9920> (접속 2022.10.15.)

32) 김상덕, “공교회를 찾아서: 빈(空) 교회가 아닌, 모두(共)의 교회로”, **복음과상황**, 365호 (2021년 4월호). <http://www.gosc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85> 재인용.

33) 위의 글.

3) 작은 교회 목회자도 소중한 교회의 일부

공교회성에 대한 논의가 반복됨에도 여전히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본질이라는 것은 그 특성을 잃었을 때, 더 이상 교회의 정체성을 잃는 것을 말한다. 우리(한국교회)가 진심으로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고백으로 고백한다면, 목회자 은퇴로 말미암아 작은 교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서로 돌보아 살펴야만 할 것이다.

목회자도 교회의 한 몸된 지체 중 일부이다. 오랜 역사에서 성직자의 과도한 권위에 저항해왔던 개신교회의 역사는 만인이 제사장으로서 평등함을 믿고 실천해왔다. 이는 목회자만 특별하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도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목회자를 여전히 특별한 지위와 계급을 부여하고 별도의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비윤리적으로 대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목사니까 비인간적인 헌신을 당연시하거나 가난을 강요하지 않았는지 점검할 때이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서의 공교회성이 어느샌가 ‘크고 성공한 교회’와 ‘작고 실패한 교회’로 경계를 구분하고 경쟁이라는 현실에서 살아남으려면 각자도생의 길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처럼 포기 아니 회피하고 있진 않았는지 고민해야 한다. 특히 미자립교회와 준미자립교회의 경우, 이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 불평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산적한데 이를 개인과 개교회가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또한 자립교회라 하더라도, 목회자의 보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의 급여나 상여금과 함께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고민을 교회는 물론 교단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한국교회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사회와 국가 차원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목회자 교육 과정 속에서 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현실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는 목회자 교육과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함께 이뤄질 때에만 가능하다. 돈이나 은퇴 후의 생계를 준비하는 것이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기지 말아야 하고, 오히려 현실의 필요가 중요하며 이를 사전에 준비함으로써 목회자 개인 및 가정과 교회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일종의 ‘헤어질 결심’을 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나가며: 불안정한 현실, 공교회적 대안이 필요하다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은 불안정하다. 교세와 교인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따른 재정의 감소와 긴축 재정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현상은 한국교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만, 그 심각성은 작은 교회일수록 더 크다. 한국교회 절반 가량이 미자립교회이고 다수의 교회들이 교인 수 100명 미만의 소형교회이다. 이 작고 평범한 교회들이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은 복합적이며, 적정한 목회자 은퇴 보수를 지급할 상황이 안된다. 이를 방치하면 문제가 생긴다. 목회자의 노후는 고통스러우며, 교회와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나아가 목회직을 사고파는 형태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미 상황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을지도 모르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은퇴 목회자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공교회성이 필요하다. 국가가 소상공인을 우대하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듯이, 교회는 작고 평범한 교회를

도와야 한다. 그 도움에는 목회자 은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재정, 주거, 의료, 심리적 서비스와 함께 목회자 은퇴 보수와 관련한 인식 개선 교육이 함께 필요하다. 대형교회의 이탈과 일부 목회자들의 비윤리적 은퇴 보수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고 평범한 교회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미 찾아온 현실이다. 이제라도 이 주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연구, 대응이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김상덕, “공교회를 찾아서: 빈(空) 교회가 아닌, 모두(共)의 교회로”, **복음과상황**, 365호 (2021년 4월호)

김승환, “한국 사회의 전세 대란의 대안으로서 사회(적) 주택의 의미와 가능성”,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기사연 리포트> 15호 (2021), 32-43.

김종선, “개신교 목회자의 은퇴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사회경제적 변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회와 사회복지」 23 (2013), 141-177.

문병용,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소형교회 목회자의 심리적 안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은퇴 후 연금제도를 중심으로”, 「교회와 사회복지」 10 (2009), 7-33.

박근수, “은퇴목회자의 은퇴준비가 성공적 노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62 (2013), 127-150.

손의성, “은퇴목회자의 우울과 고독감과 대처자원 관계 연구”, 「교회와 사회복지」 22 (2013), 7-42.

오근혜 & 황인태, “목회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관한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로고스 경영연구」 18 (2020), 1-22.

이원규, 『한국교회의 사회학』 (성남: 북코리아, 2018)

이현철, “소형교회 은퇴목회자의 삶과 딜레마에 관한 질적연구”, 「갱신과 부흥」 27 (2021), 343-370.

정재영, 『강요된 청빈』 (고양: 이레서원, 2019)

_____, “소형 교회 현실의 의미와 전망”, 21세기교회연구소·한국교회탐구센터, 『소형 교회 리포트』, (세미나 자료집, 2017.12.01.)

조성돈, “은퇴 위기, 유비무환이 답이다”, 「목회와신학」 2017년 10월호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1998-2018)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 2018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의식 조사』 (서울: 도서출판 URD, 2018)

「활천」, 805권 12호 (2020.8)

- “교회 42%가 예산 3,500만원 미만의 ‘미자립’”, 뉴스앤조이 (2018.9.13.)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9807> (접속 2022.10.5.)
- “[육속부달] 감리회 교세, 지난해만 6만 명 급감”, 기독교타임즈 (2018.10.11.) <https://www.kmc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368> (접속 2022.10.5.)
- “주요교단서 미자립교회 실태 보고”, 기독교신문 (2019.12.12.) <http://gdknews.kr/m/page/view.php?no=6994> (접속 2022.10.5.)
- “[연중기획/한국교회 샅강을 살리자 시즌2] 1부 미래자립교회 실태와 상황 ①미래자립교회 현황 파악도 못했다”, 기독교신문 (2020.2.10.), <https://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342> (접속일 2022.10.4.)
- “예장통합, 은퇴목회자 연금 지급률 15% 삭감 추진”, 국민일보 (2022.8.4.)<https://m.kmib.co.kr/view.asp?arcid=0924257838> (2022.10.20. 접속)
- “은퇴 목사 은급비 월 12만원 삭감... 젊은 목회자 국민연금 가입 의무화”, 뉴스앤조이 (2021.10.27.)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3573> (2022.10.20. 접속)
- “[특집] 은퇴 목회자 급증... ‘집 걱정’부터 덜어줘야”, Daily Good News (2016.11.10.) <http://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69553> (접속 2022.11.3.)
- “새로운 개념 아파트 ‘위스테인’, 왜 짓느냐고요?”, 한겨레 (2020.7.20.) <https://www.hani.co.kr/arti/society/handicapped/954401.html> (2022.11.06. 접속)
- “목회자 최저생활보장, 공교회성 회복의 첫걸음”, 아이굿뉴스 (2022.6.7.) <https://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9920> (접속 2022.10.15.)

발표2. 한국교회 뇌관: 은퇴

조성돈(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사회학, 기윤실 공동대표)

들어가며

목회자의 은퇴는 최고의 면류관이다. 만 70세가 되어서 목회 일선에서 물러나게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길게는 50년, 짧게는 30년 목회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었음을 말하고, 가정에서도 별문제가 없고, 무엇보다 건강이 뒷받침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 기간 동안 영육 간에 강건하고, 주어진 사명 가운데 흔들림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다.

더군다나 그 목회가 한 교회에서 지속되었다면 더 큰 영광이요, 심지어 그 교회가 자신이 개척하여 일구어온 교회라면 더욱 그러하다. 한 교회에서 10년 이상 목회한 자들은 영광을 받아 마땅하다. 10년 동안 동일한 청중을 대상으로 설교를 한다는 것은 정말 뼈를 갈아 넣는 일이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들으며 감동을 받고 깨달음이 있기에 목회가 가능하다. 그런데 그 세월이 10년을 넘어, 20년, 30년이 되었다면 그건 재주가 아니라 성실이고,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가족도 20년, 30년이면 그 관계에 있어서 몇 번의 고비를 넘기기 마련이다. 아무리 좋은 부부라 해도 위기와 애증의 상황은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한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로 만나 몇 십 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실족하지 않고 한 교회에서 은퇴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은 기적과 같다. 그런데 은퇴의 과정에서 이 수십 년의 공로를 다 까먹는 경우들이 생긴다. 수십 년 은혜로 이끌어온 목회였는데, 결국 돈 문제로 귀결되는 상황이 생긴다. 목사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교회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까지도 모든 것을 헌신했다. 집 한 칸 없이 살았고, 하나 마련했던 것도 교회를 건축할 때 과감하게 내놓았다. 정말 온전히 헌신했다. 노후에 대한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런 걱정 자체가 불신앙이라고 생각했다. 평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설교했는데, 내가 노후 걱정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했다. 하나님이 내 노후도 지켜주실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속내는 교회가 나를 돌볼 거라고 생각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는 누구보다 우리 교회가 안다. 특히 장로들은 바로 옆에서 나의 헌신을 보았다. 적어도 그들은 나를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은퇴가 다가오니 그들이 달라졌다. 돈 문제가 나오니 차가워졌다. 은퇴가 눈 앞에 다가왔는데 당장 들어가 살 집도 없다. 앞으로 30년 더 살아야 한데 먹고 살 돈도 없다. 목사라고 대접받고 살았는데, 가난으로 부끄럽지 않아야겠는데, 자신이 없다. 이제 내 노후를 저들에게 맡길 수가 없다. 내 몫은 내가 챙겨야 한다. 먼저 은퇴한 목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래서 이야기한다. 평생 이런 이야기할 줄 몰랐는데 장로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내 몫을 달라고, 구체적으로 얼마를 달라고 이야기해야 한다.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직접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 자체에 분노가 있다. 내 덕에 은혜받고, 구원받아서, 믿음의 일가를 이룬 장로들인데, 영적 아버지인 내가 은퇴하는데 알아서 해 주어야 하는 것인가. 굳이 이렇게 비참하게 돈 이야기를 내 입으로 해야 하는가 말이다. 그래서 분노가 치민다. 화가 올라오고, 목소리가 커지고, 저주가 입에서 튀어나온다.

성도들 입장은 안쓰럽다. 평생 신앙의 스승이요, 아버지로 섬겼다. 그는 목자로서 헌신했고, 그 헌신에 감동이 되어 이 교회에 평생을 헌신했다. 그런데 그 목자가 자기 몫을 내놓으라고 목청을 올리고 있다. 내가 수십 년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한다고 아등바등해서 모은 돈 보다 더 많은 돈을 내놓으라고 한다. 그 문제로 교회는 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주님의 몸이요, 그 목자의 양 떼라고 했던 교회가 싸움이 나고, 분열하여 쓰러지고 있는데, 목사가 물러나지를 않는다. 자기 분

것은 온전히 챙겨야겠다고 한다. 내가 알던 그 목사가 맞을까 하는 의심도 들고, 신앙에 대한 회의도 일어난다. 우리 부모가, 우리 형제가, 내 자녀가 그 목사에게서 세례받고, 기도 가운데 결혼하고, 자녀를 보고, 장례까지 치렀는데, 그 목사님 덕에 이렇게 신앙의 대를 잇게 되었는데, 그가 돈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 내 신앙도 문제지만, 우리 자녀가 시험에 들까 두렵기까지 하다.

이런 시나리오를 최근 한국교회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일이 되었다. 정말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한국교회에 현실이 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제 한국교회는 이 목회자의 은퇴 문제로 인해서 어떤 폭탄이 터질지 모른다. 어떤 제도가 없다 보니 영광스러운 은퇴의 자리가 돈 싸움이 된다. 목사도 실망이요, 성도들도 실망이다. 그냥 심적인 실망이면 다행인데, 다통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끝내는 교회가 분열하여 무너진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한국교회의 상황을 살펴보고, 문제의 본질과 앞으로의 제안을 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6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기반으로 한다. 은퇴 목사 1명과 은퇴를 앞둔 목사 3명, 70대 은퇴 장로와 40대 직장 여성과의 인터뷰이다. 은퇴한 목사와의 인터뷰가 몇 번 실패하여 한 명밖에 성사되지 못했다. 실은 실망한 사례가 들어와야 더 생생한 그들의 심경을 들을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이후 이어진 좌담 형식의 인터뷰도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젊은 목회자들의 목소리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을 읽게 되었다.

1. 목회자 은퇴를 이야기하는 배경

1) 은퇴/원로목사가 많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만 70세를 맞아 은퇴하는 목회자를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목회자의 수명이 평균과 비교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길다고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목회자의 은퇴를 보는 것은 그렇게 일상적인 일은 아니었다. 거기에 원로목사가 된다는 것은 더욱 그러했다. 교단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한 교회에서 20년을 목회한 이는 원로목사의 자격을 갖는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원로목사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하는 목사가 많아졌고, 원로목사 역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2명의 원로목사를 모시는 곳도 있다. ‘젊은’ 원로목사가 ‘어른’ 원로목사를 모시고 다니는 풍경도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70세에 은퇴하고 남아 있는 여생이 있다. ‘은퇴 이후’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데, 은퇴 이후 30년은 더 살아야 한다. 그 30년은 그냥 지낼 수는 없다. 아직 체력도 있고, 마음도 여력이 있다. 한 은퇴 목사는 ‘이제 목회를 알만한데 관두어야 한다’는 말로 심경을 피력한 적이 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은퇴 이후에 후배 목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회 노하우를 전수해 주고 싶다. 그래서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사역으로 전환되기를 원한다. 아직 10년이고 20년이고 충분히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문제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기반 역시 교회가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젊은 은퇴는 이렇게 복잡한 결과를 가져온다. 기존에는 생각해 보지 못한 문제들이다.

과거와 비교할 때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과거에는 가족 중심의 부양체계가 있었다. 60세가 넘어가면 자녀들에게 의존해서 살아갔다. 자녀 집에서 그들의 부양을 받으며 살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가정이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 결국 나이가 들어도 독립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에 따른 주거 문제와 생활비 문제가 있다. 이걸 가정에서 해결이 안 되니 교회가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자기 부모도 그렇게 못 모시는데 ‘영적’ 자녀들이라고 그걸 할 수 있을까. 역시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

그래서 문제가 불거진다. 은퇴 목사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교회마다 생기고 있다. 은퇴하는 목사도 영적으로나 체력적으로도 아직 힘이 남아 있다.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를 바란다. 그렇게 동분서주하며 바쁘게 지내다가 은퇴하여 30년을 뒷방에서 지낼 자신도 의지도 없다. 여기에 더해 은퇴 이후에 자녀에게 의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사회가 벌써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이러한 것이 오늘날 목회자의 은퇴가 한국교회에 뇌관이 되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2) 교회는 어렵다.

요즘 부흥하는 교회를 보는 것은 정말 어렵다. 교회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은퇴 목사에게 예우할 수 있는 돈이 없다. 은퇴에 드리는 전별금을 드릴 목돈도 없고, 원로목사에게 드리는 월정액도 드릴 여건이 안 된다.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했던 퇴직금 적립금도 이미 교회가 어려울 때 모두 빼서 써버렸다. 더군다나 교단마다 차이는 있지만, 연금도 없다.

보통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십일조는 퇴직 적립금으로 쌓아둔다. 일반적으로 목사들은 월 사례가 그렇게 높게 책정되어 있지 않다. 여타 복지 차원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이기도 하고, 목회 활동비나 도서비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정작 본봉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십일조라고 하면 그렇게 많지 않다. 결국 이것은 퇴직 적립금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교회들이 이 적립금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교회가 건축할 때, 또는 어떤 위기를 맞이할 때 이 적립금을 내어놓는 경우들이 많다. 앞장서야 하는 목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퇴직 적립금을 놔두라고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다.

즉 목사가 평생 목회한 교회인데, 감사한 마음을 표해 보려 해도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아마 대부분 작은 교회들의 상황은 다 비슷할 것이다. 결국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니 여러 편법이 나타나게 된다.

3) 미래는 불투명하다.

목사가 은퇴하면 대부분 교회의 사례를 이어간다. 원로목사의 경우도 그렇고, 꼭 원로목사가 아니어도 그렇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중의 부담을 가지게 된다. 현직 목사에게 사례가 나가고, 일정 금액은 또 은퇴 목사에게 나간다. 한 분의 월급도 책임지지 못하는 교회들이 상당한데, 이렇게 두 명의 사례를 지급하게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도 교회가 부흥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문제는 교회는 점점 줄어든다. 특히 별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리더십이 바뀌면서 위기에 빠지는 교회들이 많다.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교회는 점점 사그라든다. 그러면 원로목사에 대한 월 사례는 감당이 안 된

다. 이것이 적립되어 있는 돈이 아니고 현재 들어오는 헌금에서 지급이 되는 것이니 항상 불투명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인해서 목회자의 은퇴가 이 시대에 한국교회의 뇌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은퇴하는 목회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각 교회들은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앞으로도 이를 감당하기는커녕 교회가 줄어들어 현상 유지도 어렵다. 이런 가운데 교회나 은퇴 목사나 불안은 늘어가고, 이러한 불안이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2. 은퇴의 편법/불법의 현상: 4가지 유형

1) 후임에게 퇴직 사례를 받는 경우

작은 교회의 경우 목사가 퇴직하는데 챙겨줄 것이 없다. 요즘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 후임이 은퇴하는 목사에게 전별금을 챙겨주는 것이다. 과거에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이제는 거의 공식화 되어 있다. 오히려 목사들 개인 간의 거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직접 나서서 주선하는 경우도 있다. 즉 교회가 헌금 형식으로 받아서 은퇴하는 목사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후임을 누가 정하느냐의 문제가 쟁점이 된다. 즉 전임과 후임이 알아서 정하고 교회가 통로 역할만 할 것인지, 또는 교회가 나서서 양쪽을 다 상대할 것인지를 의논하는 것이다. 그게 그거 같지만 당하는 교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문제이다. 전자의 경우는 개인 역량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공적 여지가 없다. 즉 후임이 한 개인에 의해서 청비되는 경우의 문제가 나타난다. 후자의 경우는 그래도 교회를 거치기 때문에 좀 객관적인 청빙 절차가 생길 여지가 있다.

전에는 큰 교회들이 부교역자들에게 개척을 지원했다. 보통 1-2억 정도의 지원을 해서 개척하는 경우이다. 모든 교회가, 그리고 모든 부교역자에게 이렇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지원을 하는 셈이다. 그러면 개척하는 목회자는 일정 부분은 장소 임대 보증금으로 넣어놓고, 나머지는 교회 인테리어나 장비를 사기도 하고, 어느 기간을 버틸 수 있는 생활비 등으로 쓰기도 한다.

문제는, 요즘은 이렇게 개척하는 교회의 성공률이 지극히 낮다. 정말 상가에 개척하여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교회는 극히 드물다. 그래서 이러한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시스템에 빨간불이 켜졌다. 결국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였다.

그래서 요즘은 새롭게 개척시키기보다는 기존 교회에 들어가는 것을 선호한다. 이럴 경우 개척자금이 그 교회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전환된다. 이럴 경우 대부분 은퇴하는 목사의 전별금으로 지급된다.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 이것이 대안이 된다.

이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보면 피할 수 없는 대안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진행이 안 되면 기존 교회가 유지되기 힘들다. 그리고 은퇴하는 목사는 전셋집이라도 얻을 수 있는 자금이라도 얻을 수 있다. 또 지금 개척하는 것도 무리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요즘은 이런 현상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다.

2) 교회 병합을 통해서 퇴직 사례를 받는 경우

요즘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니 교회당 유지가 어려워지는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교회 병합이다. 각각 존재하던 두 교회가 교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합치는 것이다. 이것은 코로나의 영향력도 큰 몫을 했다. 요즘은 상가나 공공공간에서 교회당을 얻는 것이 어렵다. 교회로 인해서 상가 전체가 영향을 받는 일들이 꽤 일어났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혐오가 이렇게 표출되기도 한다. 그래서 상가에서 교회하던 사람들이 다수 쫓겨났다. 실제로 그러한 이유로 상가에 자리한 꽤 큰 교회가 교회당 재계약을 못 한 경우가 주변에서 있었다.

또 다른 현상으로 교회당은 번듯하게 있는데 교회가 무너진 경우가 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교인들이 교회를 떠난 것이다. 때로 분열로 인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자연스럽게 도태한 경우도 있다. 어쨌거나 부흥하던 시대에 마련한 교회당이 있는데, 그마저 유지하기 어렵다. 한 교회는 교회당이 상당한 규모로 있었다. 교회가 있는 자리는 땅값이 전국적으로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담임목사는 원로목사로 은퇴를 했고 후임이 들어왔다. 그런데 이후 교회는 대혼란에 빠졌다. 다툼과 싸움이 일어났고, 교회 재산을 둘러싼 사기 사건도 있었다. 결국 교회는 교인을 다 잃었고 교회당만 남았다. 물론 원로목사의 사례는 감당이 안 됐다.

이 교회는 앞의 상가에서 쫓겨난 교회와 합병을 했다. 앞의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로 교인이 있었고, 뒤의 교회는 교회당은 있는데 교인이 없었다. 서로 교류가 있었던 교회는 아니었지만, 현실적 상황에 밀리어 두 교회는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합병의 조건 중 하나는 원로목사에 대한 대우였다.

최근 이러한 사례가 적지 않다. 코로나 상황에서 나타난 특이한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제 이런 형태 역시 합리적인 대안으로 자리하고 있다.

3) 교회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받는 경우

아직 이런 케이스가 일반적인지는 모르겠다. 인터뷰 과정에서 들은 내용이다. 목사가 은퇴하는데 전별금도 마련해 줄 수 없는 상황이다. 교회당은 상가에 있다. 교인들이 은퇴에 맞추어 교회당을 팔기로 합의했다. 그렇게 마련한 돈으로 목사의 은퇴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자기들은 그에 맞추어 해산하기로 했다. 이런 일을 아름답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교육지책으로 마련한 방법인 것 같다.

또 다른 케이스는 교회당을 팔고 규모를 줄여서 은퇴자금을 마련하는 경우이다. 지방에 있는 한 교회는 5층짜리 건물에 교회당과 목사 사택, 그리고 함께 한 교인들이 층을 달리해서 살았다. 교회를 지을 당시 목사와 몇 교인이 동의하여 살던 집을 정리해서 공동주택 형식으로 마련한 교회당이였다. 그런데 목사가 은퇴할 때가 다가오자 문제가 생겼다. 은퇴 후 그 교회에서,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없다. 결국 교회당을 팔아 작은 곳으로 옮기고, 목사 사택을 분리하여 마련해 두려 했다. 그런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목사의 몫이라는 것이 있는가의 문제제기였다. 결국 교회는 분열이 되었고, 목사는 일정액의 퇴직금을 받고 은퇴 전에 나오게 되었다.

또 다른 경우는 교회당이 있는 곳에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었고, 교회당은 지역사회에 팔게 되었다. 그리고 교회당을 근방에 다시 사게 되었다. 그런데 그사이에 남는 금액이 있다. 이 경우도 역시 목사가 교회당 안에 있는 사택에 살고 있었다. 목사는 그 남는 금액에서 퇴직금 중간 정

산을 요청했다. 그 돈이 2억 5천만 원이다. 목사가 개척하여 은퇴를 앞둔 교회이다. 이 돈에 대출을 얻어 교회 앞에 아파트를 하나 샀다. 일단 노후에 들어갈 살 집은 마련을 한 것이다. 일이 순조롭게 풀려서 큰 어려움 없이 노후를 마련한 경우이다.

4) 교회 재산을 정리하는 경우

가장 안 좋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퇴직하는 목사가 교회의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다. 교회는 집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교회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교인 총회와 같은 회의체가 중요하다. 그런데 목사가 퇴직하는 상황에서 교인들을 내보낸다.

방법은 다양하다. 교회가 이사를 가는 경우다.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간다. 그러면 못 좇아오는 교인들이 생긴다. 그리고 다시 또 이사를 간다. 이렇게 2-3번 이사를 하면 기존 교인들이 다 떨어진다. 물론 새로운 교인을 받을 생각도 안 한다. 결국 목사 가족과 가까운 사람만 남아서 교회의 재산을 정리한다. 건물과 남은 재산이 모두 대상이 된다.

또 다른 경우는 교회에 분란을 일으킨다. 그 과정에서 교인들이 교회를 버리고 나가버린다. 경기도의 신도시에서 일어난 일이다. 구 시내에 있었던 교회인데, 교회에 다툼이 일어났다. 법정 다툼까지 가는 치열한 싸움으로 번졌다. 장로와 목사 사이에 일어난 법정 다툼이었는데, 목사가 이겼다. 그리고 교회당을 옮겼다. 새로 조성된 신도시로 새로 건축을 하고 이사를 했다. 그런데 교인은 다 사라졌다. 교회당이 매물로 나와서 개인적으로 소속되었던 교회의 장로들이 분립개척을 위해 알아보러 갔다. 목사가 나와서 언제든 매매가 가능하다고 소개하더라. 교회가 목사의 개인재산이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재산을 정리해서 셀프 은퇴를 하려는 것이다.

3. 은퇴의 핵심 사항

목회자가 은퇴함에 있어서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집과 월 생활비이다. 대부분 특별한 준비가 없이 은퇴를 맞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다. 자세히 보도록 하겠다.

1) 집

‘집 문제가 제일 큼니다. 뭐 집만 있으면야 나머지는 뭐 그냥 먹고 사는 건 괜찮고요.’ 한 은퇴 목사의 이런 이야기는 현실이다. 집이 가장 큰 문제이다.

목사들은 대부분 사택에서 평생을 지낸다. 자기 집을 가져야겠다고 생각도 못해 보았고, 그런 목돈을 모으는 것도 어렵다. 자기 집을 가졌다 해도 교회의 건축과 같은 큰 일이 있을 때 앞장서서 헌금을 내야 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유지하는 것도 어렵다. 그래서 은퇴하면 가장 크게 와 닿는 것이 집이다. 웬만한 교회에서 목회를 한 목사들은 은퇴를 맞아 집을 산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전세금이라도 마련이 됐으면 하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 교회나 목사 입장에서 우리가 생긴다. 당장 교회를 나가는데 후임 목사를 위해서 사택을 비워주어야 하고,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하려면 큰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마련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다.

바로 여기서 다양한 선택 앞에 서게 된다.

가장 기초적인 문제는 은퇴하는 목사가 살아야 할 집을 교회가 책임져야 할 것인지, 목사 개인이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일반적인 직장에서 은퇴를 한다면 이걸 질문이 안 된다. 은퇴한다고 집을 마련해 주는 직장은 없다. 하지만 교회는 항상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다. 교회 소유의 사택에서 평생 살았던 분을 집이 없이 은퇴하게 한다면 매정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에서 은퇴하시는 분의 주거 문제를 책임지고 있다. 문제는 교회가 그럴만한 자산이 있는지 의문이다. 매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유동자산이 있는 교회는 그렇게 흔하지 않다. 전세 금도 쉽지 않다.

그런데 은퇴하는 목사의 입장에서는 아주 난감한 문제이다. 당장 은퇴하고 그 다음 날이라도 들어가 살 집이 없으면 갈 곳이 없다. 실제로 인터뷰를 진행해 본 목회자들은 모두 다 은퇴 이후에 지낼 집에 대한 고민이 컸다. 전에 만났던 지방의 중대형 교회 목회자 역시 집 걱정을 했다. 은퇴 이후에는 임대주택을 알아보아야겠다고 하는 그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다.

이런 현실 앞에서 아무래도 은퇴하는 목회자가 무리를 하게 된다. 당장 살 집을 교회에서 마련해 달라고 하거나, 집을 구할 수 있는 목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다. 교회는 마련할 길이 없고, 역시 무리한 방법을 강구하거나 목사와 싸움을 해야 한다. 아무래도 줄 수 없는 이유와 당위를 찾다 보니 목사의 문제를 들추어낼 수밖에 없고, 믿고 따랐던 목사에게 대한 뒷이야기들이 떠돌게 된다.

또 다른 선택의 문제는 교회가 집을 구입하여 마련하면, 그 소유를 어디로 할 것인가이다. 보통 이럴 경우 퇴직금 성격으로 은퇴하는 목사에게 소유권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소유권은 교회로 하고 은퇴하는 목사와 그 사모가 돌아가시기까지 그곳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흥미로운 것은 최근 부동산 가격이 2배 가까이 폭등하면서, 이 부분에서 은퇴 목사의 희비가 갈렸다는 후문이다.

주택 문제가 끼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난다. 교회에서 은퇴 목사에게 주는 주택에 드는 비용이 은퇴비용으로 계산된다. 최근 한 초대형교회의 목회자 은퇴에 대한 기사가 나온 적이 있다. 은퇴하는 데 드는 비용이 20억이라는 계산이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집을 하나 해 주었고, 월 생활비로 들어가는 비용을 20년 계산해서 합산했다. 초대형교회에서 20년 가까이 목회한 목회자에 대한 대우로서는 그렇게 무리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놀랄 만한 일이다. 은퇴하는데 교회에서 20억을 준다고 하면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즉 교회에서 은퇴하는 목사에게 집을 마련해 주는 것도 이후 나타나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단순한 일은 아니다.

또 다른 문제가 또 있다. 개인이 한다고 하면 임대로 갈 것인지, 전세로 할 것인지, 소유를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다. 물론 이거야 개인이 여건에 따라 할 일하기에 특별히 언급할 바는 없다. 그런데 요즘은 정부에서 지원되는 주거보조가 혜택들이 많다. 예를 들어 임대아파트와 같은 경우들도 있다.

은퇴하는 목사들에게 아무래도 주택문제가 심각하고, 수도권에서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 요즘 나타나는 현상이 지방으로 은퇴 목사들이 몰리는 것이다. 한 목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주변에서 속초로 가는 원로 목사들이 많다고 한다. 노회장을 지낸 분들도 몇 분 속초로 갔다고 한다. 아무래도 지방이 주거비용이 적게 들고, 주거를 위한 혜택도 많다고 한다. 더군다나 속초는 자연환경도 좋고, 서울과의 교통연결도 수월하다. 이렇게 모이다 보니 속초에서 은퇴한 목사들이 모여서 교제를 나눌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다. 관련해서 주변에 물어보니 흥미롭게도 교단 별로 선호하는 지역이 달랐다. 감리교는 천안 쪽으로 모인다는 이야기이다. 아무래도 지역별로 교단이 모이는 곳이 있는 것 같다.

2) 월 생활비

목사들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월 생활비는 교단 연금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교단 연금이 다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2020년 기준 교단 연금을 운영 중인 교단은 모두 8개 교단이다. 예장통합, 예장합동, 예장고신, 기독교장로회, 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등이다. 최근 침례교회와 예장백석이 연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한국교회에 속한 목회자 중에 이러한 교단에 가입이 안 된 목회자들은 결국 교단에서 나오는 연금은 없다는 의미이다. 더군다나 교단에서 나오는 연금이 그렇게 넉넉한 수준은 아니다. 연금이 생활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다른 방편은 교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다. 원로목사의 경우는 교회에서 생활비가 지급되고 있고, 아닌 경우는 교회의 형편에 따른다. 하지만 작은 교회의 경우는 이러한 것이 쉽지 않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보편적으로 가늠을 해 보기 위해서 한 은퇴 목회자의 생활비를 공개한다.

이 목회자의 경우는 은퇴한 교회가 연 예산 3억 정도이다. 목사는 이 교회에서 14년을 목회하고 은퇴했다.

10년 간 교회에서 적금: 7천만원

은퇴 에우 퇴직금: 1억 (마지막에 교회에서 결정)

매달 50만원 교회에서 지급 (10년에서 종신으로 조정)

교단연금 76만원

국민연금 40만원

이 목사의 경우 교회에서 마련해 준 목돈으로 전세금을 마련했다. 그리고 월 170만 원 정도의 수입으로 생활한다. 그래도 살 만하다고 한다. 이 목사는 인터뷰 내내 ‘괜찮더라고요’라는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다. 그 정도면 섭섭하지는 않았는지 물었는데, ‘근데 우리가 내려놓으면 돼요. 괜찮더라고요. 굶어 죽지 않고 그냥 그래도 사람 노릇하고 살더라고요. 해도 뭐 할 거 하고. 너무 돈돈 안 해도 괜찮아요.’

교회에서 이 정도면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그렇게 잘 대우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현재 교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합리적으로 되었다고 본다. 교회 입장에서나 은퇴하는 목사의 입장에서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은 수준이다.

4. 다른 시선

목회자 은퇴문제는 목사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교회에서 지급해야 하는 돈이고, 교회는 곧 공동체이니 성도들의 입장도 중요하다. 이에 성도 2명의 입장에서 정리를 해 보았다. 먼저는 목사 은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의 장로였던 70대 남성의 목소리를 듣고, 이후 30대 후반 여성 성도의 목소리를 전해 보고자 한다.

1) 70대 은퇴 장로

시무하던 교회는 성인 기준 출석 교인이 600-700명 정도 되고, 1년 예산이 20억 정도 되는 교회였다. 거기서 장로로 시무했고, 목사가 은퇴할 당시는 교회의 감사였다. 교회는 은퇴하는 목사가 카리스마 리더십으로 이끌었다. 교회 행정에 대해서 장로들도 파악이 안 되고 있었다. 심지어 목사의 처남이 수석장로 겸 재무장로였다. 행정이 어떠한지는 짐작이 가는 부분이다.

목사의 은퇴에 대한 논의는 약 4-5개월 정도 진행되었다. 은퇴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가 갑자기 이루어졌다. 논의는 토론이나 공적인 과정을 통한 것이 아니라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 은퇴 준비는 목사 혼자, 재무장로와 했다고 봐야 한다. 즉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니라 공개가 안 되었을 뿐이다.

논의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그랬더니 은퇴하는 목사와 장로들이 근거자료를 마련했다. 주변에서 비슷한 규모의 교회가 은퇴한 사례를 이야기했다. 이 교회에서는 은퇴 이후에 월 400만원의 월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1천만 원씩 한다는 것이다. 그에 비하면 이 교회는 적게 드리는 것으로 주장을 했다. 이러한 주장으로 교인 총회를 통과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나중에 조사해 보니 거짓이었다. 하지만 이미 총회에서 통과가 된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 장로는 은퇴에 대한 매뉴얼이나 규칙이 있었으면 했다. 총회가 그런 규칙을 제시해 주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각 교회가 준비했을 텐데,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이니 목사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고, 다른 교회도 이렇게 했다더라 하는 전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결과는 원로 목사에게 신도시에 신축된 집과 아파트를 주고, 월 400만원의 월 생활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됐다. 물론 이외에도 교단연금과 다른 퇴직금도 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본 장로도 원로목사가 얼마나 더 챙겼는지는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어렵짐작해 보면, 월 생활비로 나가는 것을 빼고 부동산과 퇴직금 등으로 나간 지원이 대략 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교회 1년 예산이 은퇴 과정에 원로목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인터뷰에 임한 장로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래도 관대했다. 그동안 목회하셨던 거 생각하고, 들어가 살 집도 필요하니 그럴 수 있다고 한다. 단지 월 400만원은 과하다고 한다. 그 정도면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도 받기 쉬운 금액이 아닌데,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돈을 받는다는 것은 과하다고 한다. 아마 평생 회사를 운영하며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근로가 없는데 이런 돈을 월급처럼 매달 교회에서 지급하는 것이 꺼렸던 것 같다.

이후 교회는 혼란에 빠졌다. 은퇴 과정에서도 문제 제기와 다툼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장로회에서는 대부분이 원로목사 편이었고, 교인들도 60-70%는 원로목사 편이었다. 그런데 젊은 성도들은 달랐다. 권사들이 들고 일어났다. 40-50대의 권사(감리교는 안수집사 제도가 없고 남여모두 권사로 부른다) 그룹에서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나갔다. 특히 원로목사가 은퇴한 이후에 살펴보니 재정적인 문제가 많이 나타났다.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사안들도 많았다.

결국 원로목사는 원로 자격이 박탈되었다. 교회에서 주었던 부동산도 일부 반납했다. 또 이후에 발견된 교회 관련된 부동산도 반납이 되었다. 그리고 원로목사에게 주어지는 400만원의 생활비도 중단이 되었다. 기존 과정을 생각해 보면 원로목사가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쉬워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물어보니 법적인 문제 때문이었다. 사회 법정으로 가게 되면 범법행위로 나타날 것이 두려워서 합의해 주었다고 한다.

이후 원로목사와 재무장로는 교회를 떠났다. 당시 교회에 있었던 장로들은 교회를 떠나거나, 이제는 은퇴했다. 교회는 분열되어 힘든 과정을 거쳤다. 20% 정도의 교인이 교회를 떠났다. 현재는 후임목사 체제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부흥했다. 하지만 아직도 양금은 남아 있다. 인터뷰에 임한 장로는 아직도 마음에 짐을 가지고 있다. 평생 목회한 목사를 이렇게 떠나게 하고, 교회로 다시 오지 못하게 했다는 죄책감이다. 그래서 전 원로목사와의 화해를 교회에 건의해 보았는데, 후임 장로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장로는 이런 말을 남겼다.

‘그 퇴직금은 당연히 그건 정리가 되는 거고. 퇴직금 외에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상식선에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가령 그분의 예 새 생활할 수 있는 그 어떤 그런 그 생활이 불편하지 않은 정도의 그런 정도의 뭐 그런 정도 수준을 만들었으면 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 30대 후반 직장인 여성

30대 후반의 직장인 여성은 이미 10년 넘는 직장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사회생활에 비추어 목사의 은퇴는 놀랄 일이다. 그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인정(人情)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성(理性)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앙의 집안에서 성장한 이 성도는 집안에도 목사가 여럿 있었다. 그들을 생각해 보면 교회에 헌신했으니 교회가 어느 정도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은 맞다고 한다. 그러나 이 성도는 ‘어느 정도껏’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성도는 목사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한다. 목사라고 어떻게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느냐는 말도 했다. 헌신한다는 것 인정하지만, 특별한 건 아니라고 한다.

‘교회가 사회 내에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교회가 사회 밖에, 법 밖에 있어요. 우리 아빠도 평생 사업 열심히 했고 나도 내 일 열심히 해요. 목사가 월급 받으면서 열심히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왜 그게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의 인식이 들어있다. 목사를 신령한 어떤 계급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목사는 단지 교회에서 하는 직업이다. 그러면서 인식의 전환을 요구한다. 젊은 사람들은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을 경험하면서 어떤 권위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체험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 단지 교회만 이 변화를 모른 척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지적인 이제 개 교회의 문제로 풀 것이 아니라 교단을 포함하는 시스템으로 풀어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예를 들었는데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는데 시스템이 안 쫓아가고 있다고 한다. 이미 가족봉양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인식에서 사라졌는데, 아직 시스템은 이후에 나타나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나 노인들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사회의 인식이 변했고, 교인들의 인식이 바뀌었는데 교회의 시스템은 안 바뀌었다. 회사에서 30년 일했다면 근속휴가도 주고, 월급도 더 주고 하는 것처럼 교회가 바뀌어야 한다. 근데 이런 것을 교단이 해 주어야 한다. 은퇴도 마찬가지다. 특별할 것 없이 교단이 시스템을 갖추어서 하고, 특별할 것 없이 사회와 다르지 않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내가 직장인이니까 나는 국민연금 있고 퇴직금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똑같아요. 일반 성도들도 나도 막연해 나도 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월급 얼마 안 되는 거 쪼개서 내 노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럼 목사도 준비해야지. 그러니까 목사의 월급을 실질적으로 올려야지. 그러니까 교회 현금으로 안 되면 그 나머지는 교단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이 성도의 주장은 아주 합리적이다. 사회에서 직장인이 받는 대접을 목회자도 받아야 하고, 그것은 덜도 더도 아닌 것이어야 한다고 한다. 이게 현재 젊은 세대들의 생각이라고 본다. 실은 젊은 세대라고 하지만 30대, 40대, 그리고 50대까지의 성도들이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지만, 사회 경험도 있고, 자신의 삶도 있다. 그러한 범주 내에서 목사의 은퇴도 생각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들이 동의해야 한다. 아니 이들이 동의하는 수준의 은퇴 과정이 있어야 한다. 특별할 것이 없이 이들이 생각하는 범위 안에 머물러야 한다.

이들이 볼 때 목사는 자신들보다 조건이 유리하다. 정년이 70세이다. 사회 어느 곳에서도 정년이 70세인 곳은 없다. 이들 입장에서, 70살 되도록 월급은 받았는데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한 것은 상당히 이상하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교회 보고 집을 해 달라고 한다. 더 나아가서 교회 보고 매달 생활비를 달라고 한다. 이건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다.

이 성도가 인터뷰 중에 아주 의미 있는 명언을 했다.

‘목사님 직업인라고 본인은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성직자도 맞죠. 근데 성직자도 직업인이잖아. 그니까 직업 있는 성직자처럼 살아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5. 은퇴 후 수입

1) 은퇴적립금

교회 마다 목사의 본봉의 10% 내지는 목사가 내는 십일조는 은퇴적립금으로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걸 유지하고 있느냐이다. 교회가 힘들더라고 이걸 유지해야 하고, 이 선에서 퇴직금이 정리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

2) 교단연금

요즘은 점점 교단에서 연금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쉬운 것은 연금이 있는 교단마다 이 문제로 인한 비리나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또 교단에서 운영하는 연금의 수익률이 너무 낮다. 거기에 엉뚱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투자가 손실로 나타나기도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수익에 문제가 있다 보니 아무래도 현직 목회자들의 적립금으로 은퇴 목회자들의 연금을 채우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있는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3) 개인연금: 보험 / 펀드

교회에서 교단연금 외에 사적인 연금을 가입한 곳들이 있다. 교단 연금이 아무래도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오히려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이러한 사적 연금이 더 좋다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적극 권하고 싶은 것이기도 하다.

4) 주식 / 재테크

인터뷰를 진행했던 한 목사는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미 10년 전에 은퇴에 대한 고민 끝에 교회에 중간정산을 요청했고, 그 돈으로 안정적인 주식에 투자를 시작했다. 이 목사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 부분을 보고 설명을 했는데, 필자가 이해를 다 못해서 전달을 정확히는 못하는 한계가 있다. 하여간 한국 주식 시장은 급락이 커서 불안정하나 미국의 주식 시장이 안정적이라며 여기에 투자를 하면 큰 이익은 없을 지라도 손실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10년 전부터 투자를 하고, 꾸준히 하고 있다는 한다. 이게 본인의 은퇴 자금이라고 한다.

5) 수입 창출: 2. JOB

은퇴 이후의 새로운 직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요즘 건설 쪽에 인력이 부족하여 기술을 익히면 괜찮은 수입원이 된다고 한다. 전기, 타일, 배관, 용접 등 기술이 있다면 나이가 있어도 해 볼만 하다고 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직업군이 가능한데, 그러한 기술을 통해서 은퇴 이후에도 경제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의미 있다.

6. 제안

1) 은퇴에 대한 규칙이나 매뉴얼이 필요하다.

현재 교단에서 정해 놓은 규칙이나 매뉴얼이 없다. 교회마다 은퇴하는 목사와 교회가 절충을 하여 정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당사자들이 직접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런데 서로 목사와 교인으로 살다가, 돈 문제로 '거래'를 해야 하니 쉽지 않다. 편한 논의나 거래가 되지 않으니 아

무래도 무리수가 나타난다.

은퇴에 대한 규칙이나 매뉴얼이 정해진다는 것은 쉽지 않다. 교회마다 가진 여건이 다르고, 목사도 그 교회에서 하는 연수와 기여도 등 여러 가지로 변수가 많다. 하지만 기본적인 규칙이 정해져 있다면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논의를 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해진다면 원칙적일 수밖에 없다. 퇴직적립금과 교단 연금 외에 교회에서 마련한 사적 연금 정도가 기본일 것이다. 목사는 결국 이 정도로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

2) 은퇴에 따른 중재위원회 필요

감리교는 감리사가 각 교회를 감독한다. 매년 개 교회에서 하는 연말 당회(비교: 제직회)에 참여하여 1년 결산과 예산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 여기서 보통 목사의 사례에 대한 것도 정리가 된다. 목사가 은퇴할 때도 감리사가 중재에 나선다. 교회와 목사의 입장에서 중재, 즉 감독을 실시한다. 실제로 한 교회의 목사 은퇴에서, 교회가 제시한 안에 대해서 감리사가 중재를 했다. 교회는 은퇴 이후에 매달 50만씩 생활비를 드리는데, 그 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그런데 감리사가 조정하여 종신으로 그 기간을 중재했다.

이와 같은 기능은 장로교에는 없다. 개교회 중심으로 제도가 짜여 있다. 그래서 노회장이나 시찰장이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없다. 제안한다면 은퇴 관련해서는 중재위원회를 노회 차원에서 구성해서 나서는 좋을 것 같다. 당사자들이 직접 나설 것이 아니라 중재하는 사람이 있어서 합리적으로 이끌어 준다면 좀 더 합법적인 선에서 은퇴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아무래도 여러 부분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에 중재위원회나 중재위원이 채워 줄 수 있다.

3) 노회 제도 개선

한 목사의 제안인데 합리적으로 보인다. 노회에 전도사가 등록하면, 먼저 건강보험과 국민보험을 들어 준다. 목회자로서 가장 최소한의 보장을 노회가 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목사가 되면 주택청약예금을 시작해 준다. 청약저축을 10년 지속하면 앞으로 주택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니,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은 노회가 공동체로서 책임을 져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그럴 법하다. 노회나 지방회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다.

4) 은퇴 후 수입 교육

은퇴 이후에 2. JOB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이제 목사들에게 이직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문제를 목사 개인이 알아서 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교단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5) 교회, 목사, 장로 등 은퇴에 대한 교육 필요

은퇴를 처음 맞는 교회들이 많다. 또 경험이 있다고 해도 시대의 변화 때문에 현재에 적용이 쉽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퇴 준비는 일찍 시작해야 한다. 은퇴를 목전에 두고 시작한다면, 너무 현실적이 되어서 서로 불편하기만 하다. 서로 여유가 있을 때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퇴는 은퇴 때에 이르러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것이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 그냥 주변에서 들은 풍월로, 또는 어떤 이들의 영웅담으로 은퇴를 마주하면 큰일이 난다. 일찍부터 교회와 목사, 그리고 장로 등에게 은퇴에 대해서 교육해야 한다. 목사에게는 합리적인 대우가 있어야 하고, 교회에는 납득이 될만한 존경스러운 목회자의 은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실무를 감당해야 할 장로들은 더욱 이 부분에 대한 지식과 상식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교육은 어느 때, 어느 특정인이 아니라 교회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각 부분에서 이루어져 한다.

6) 돈이 아니라 관계

평생 목회한 교회이다. 수십년 돌봄을 받아온 목회자이다. 이런 관계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끊어질 수 있겠는가. 그런데 돈 때문에 무너진다. 적어도 이 관계는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으면 한다.

은퇴 목사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은 자신이 그렇게 헌신해서 세운 교회를 못 가는 것이다. 그 교회에서 돈은 가져왔는데, 공동체는 잃은 것이다. 또 이렇게 헌신한 목사가 물러나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비극이다. 은퇴 예우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돈이 아니라 관계가 절실히 필요하다. 은퇴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금은 관계 안에서 풀어 가야 한다. 어떤 목사는 이런 말을 했다.

‘남에게 베풀고 선교를 잘하는 교회는 은퇴하는 목사에게도 그걸 잘하더라. 주기를 잘했으니 은퇴하는 목사에게도 잘 준다.’

결국 은퇴는 목회자의 성적표가 된다. 그가 목회를 어떻게 했고, 교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했느냐가 드러난다. 그런데 이게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가 든다.

은퇴를 잘하면 목사도 교회와 분열되지 않는다. 그리고 교회 역시 분열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는다. 평생 신앙의 상징이었던 목사에게 실망하고 그 신앙을 버릴 수 있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 동안 내가 세웠던 양들이고, 내가 그들의 목자고, 그들을 목양했다는 사실은 잊지 않았으면 한다.

은퇴 목사의 한 말씀이 오래 마음에 남는다.

‘서로 종이네 뭐 양이네 하고 살았던 사람들끼리 등을 돌리고 뭐 이렇게 얼굴 붉히고 살고 저주하고 그러냐고. 그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 같습니다.’

현재 한국교회에서 은퇴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정말 폭탄과 같다. 곳곳에서 교회가 깨어지고, 서로를 향한 저주와 원망이 난무한다. 그런데 아직도 은퇴에 대한 대책이 없다. 각 교회가 알아서 해야 하는 형편인데, 그 모양을 보면 평안한 곳이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제 교회가 부흥할 때 세워졌던 많은 목회자들이 은퇴를 앞두고 있다.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었다. 곳곳에서 폭탄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그래서 목사의 은퇴를 ‘한국교회의 뇌관’이라고 표현했다. 이 뇌관이 터지는 순간 그동안 한국교회에 축적된 많은 문제들이 폭탄과 같이 나타날 것 같았다. 이제 시급하게 한국교회가 이 목사의 은퇴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미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터지고 있는 연쇄 폭발의 위험에 바리케이트를 쳐야 한다.

* 본 연구는 전주 삼성안과이비인후과
문성헌 원장님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